



Best Partner
For Your Success

ZENIEL 2025 WINTER
VOL.109

제니엘



ZEN-iPlus

고객의 '안전' 고민을 해결하는 서비스 패키지

초저지연 통신 기술과 AI 기술 기반 디바이스를 결합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유연한 현장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강화되는 규제 대응

증가하는 사고 예방

유연한 IoT 연동



5G
특화망

+ AI CCTV

+ IoT Sensor

+ Digital Robot

+ ATV / AGM

안전 경영

스마트 현장

운영 효율성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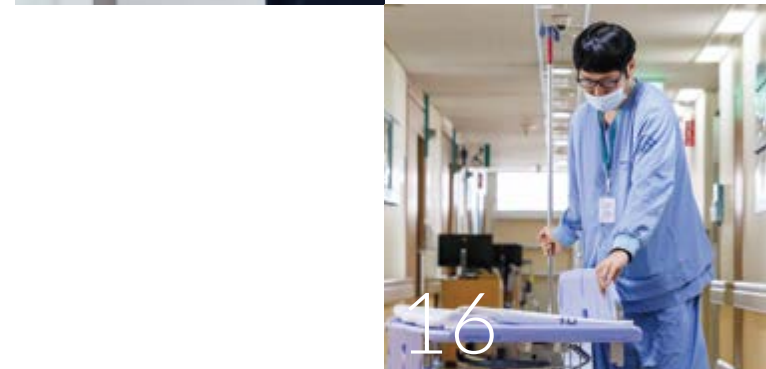
The Best Partner for Your Success.

CONTENTS

2025 WINTER Vol.109

	CEO LETTER	04
	목표 설정과 실행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성장	
ZENIEL FAMILY	베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영점	08
	향기와 취향을 잇는 '향기 큐레이터'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	12
	신속 정확한 문제 해결로 고객 경험 만족도를 높이다	
	중앙대학교병원 환자이송팀·수액배송팀	16
	안전하게 이송하고 정확하게 배송합니다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	20
	성공적 취업을 위한 양질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다	
ZENIEL STORY	30TH ANNIVERSARY	24
	제니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도서 발간 세미나	
	ZENIEL SOLUTION	28
	스마트 현장 관리 솔루션 ZEN-i Plus	
	CONGRATULATIONS	29
	2025년 4분기 우수사원	
	ZENIEL NEWS	30

08



발행일 2026년 1월 29일 발행인 박인주 발행처 (주)제니엘 www.zeniel.com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02 제니엘빌딩 TEL 02. 580. 0114 FAX 02. 580. 0104
전략기획실 jminsoo7083@zeniel.co.kr 기획·편집 PEOPLE PAGE(대표번호 02. 6674. 0111)
사보 <제니엘>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이며, 제니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니엘>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박인주
제니엘그룹 회장



목표 설정과 실행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사랑하는 제니엘그룹 임직원 여러분

2026년, 우리 제니엘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30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14,000여 명의 임직원과 함께 성장해 온 제니엘은 단순한 아웃소싱 기업을 넘어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설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저는 기업의 성장이 숫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니엘이 지향해 온 성장은 언제나 '사람'에서 출발해 왔습니다.** 현재 110여 명의 장애인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이분들이 생애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 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순간은 기업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장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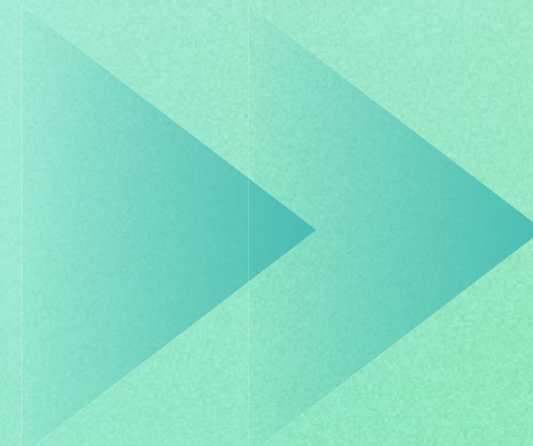
기업인으로서 받은 사회적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매년 50여 명의 미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푸른꿈일자리재단을 통해 매년 900여 명의 경력단절 여성분께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꿈'을, 여성들에게는 '당당함'을,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가 배워 온 '아름다운 경영'의 실천이며, 제니엘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조직과 구성원 각자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시나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창업자로서의 경험과 경영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성장과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위기와 선택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깨달은 점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즉 바라봄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며, 결국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니엘은 아웃소싱 기업을 넘어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설계하는 파트너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리더의 관점과 태도는 조직 전체의 성과와 문화를 좌우합니다.** 조직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리더 아래에서 성장의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문제와 한계만을 강조하는 환경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급과 역할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의 시선 하나가 구성원의 태도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니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작성하는 '바라봄의 나의 목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불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상대의 단점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갈 장점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일정한 주기마다 무엇을 실천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목표는 반드시 업무 성과에만 국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배움과 역량, 생활 관리, 사회적 가치, 봉사,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성장은 결국 조직의 안정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성장하는 구성원이 많은 조직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문화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태도와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태도는 말과 행동 이전에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자세,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작은 배려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개인과 조직의 품격은 함께 높아집니다. 이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울러 저는 **독서와 학습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독서는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학습과 성장을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영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목표를 잃지 않았기에 버틸 수 있었고, 관점을 바꾸었기에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와 예기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 역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목표를 잃지 않으면 위기가 오더라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점검과 수정 과정입니다.

대응하느냐입니다. 문제보다 기회를 먼저 보는 시각이 조직의 경쟁력을 만듭니다.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장이 곧 제니엘의 미래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목표를 점검하고, 더 넓은 가능성을 바라보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또한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이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 있는 도전과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제니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와 취향을 잇는 '향기 큐레이터'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영점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영점에서는 고객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과도한 응대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직원들은 편안하고 친절한 '향기 큐레이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고객의 취향과 다채로운 향기를 조화롭게 연결시킨다. 지난 12월 초 개점한 이곳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고객의 코를 사로잡는 '향기 천국'

1990년 미국에서 탄생한 배스앤바디웍스는 300여종의 향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향 제품과 바디케어 제품을 선보이는 향 전문 브랜드다. '향기 천국'이라는 별명답게, 향기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는 게 이 브랜드의 차별점. 색다른 콘셉트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 브랜드는 지난 12월 5일, 파주에 들어선 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빌리지 운영점의 1층에 매장을 오픈했다. 제니엘 직원들이 총괄 운영하는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영점이 바로 그곳이다. 개점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문했지만,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영점은 마치 몇 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매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고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이곳 현장을 관리하는 김지연 스토어매니저가 매장에 대한 소개를 이어 나갔다. "스타필드빌리지 운영점은 아파트 단지와 쇼핑몰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쇼핑 공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지역 주민부터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 쇼핑 나들이를 온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다채로운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데요. 여느 브랜드와 달리 향기를 핵심 콘셉트로 가져가는 만큼, 이를 신기해하면서 발을 들이는 고객이 상당수입니다."



보통 고객이 화장품·향수 매장을 찾으면, 직원들은 특별히 찾는 제품이 있는지를 먼저 묻기 마련이다. 반면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영점은 고객의 취향과 구매 목적에 알맞은 향을 권유하고 시향을 돕는 '프래그런스 큐레이션(Fragrance Curation)'을 먼저 제공한 뒤, 고객이 선택한 향기 라인업의 제품들과 각각의 특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편안한 큐레이션과 남다른 제품 포장

배스앤바디웍스는 2024년 5월 국내 1호점을 개장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이다 보니 그 인지도와 '향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 콘셉트'가 아직 낯설 수밖에 없다. 김지연 스토어매니저와 6명의 직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과도한 고객 응대로 구매를 유도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브랜드와 제품의 특장점을 듣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물론 매장 직원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맞춤형 응대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이 이 같은 응대법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고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브랜드의 가치와 다양한 향기를 마치 전시관 큐레이터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이런 모습에 이끌려, 부담 없이 우리 매장을 둘러보는 손님도 꽤 많습니다.”



이른바 '큐레이션형 고객 응대'와 함께 제니엘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또 하나의 업무는 제품 포장이다. 연말 연시를 맞아 주변에 제품을 선물하기 위한 대량 주문이 많은 편인데, 이 같은 수요에 발맞춰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제품 포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리본을 예쁘게 묶는 다양한 방법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실제 제품 포장에 활용할 정도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선물용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이 부분을 더욱 중시하는데요. 우리 매장의 매출 향상을 넘어,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의 가치를 향상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제품 포장 하나하나에 정성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도약의 2026년'을 만들어 가다

손발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점 직원들은 남다른 팀워크를 뽐낸다. 고객 응대, 계산, 재고 관리 등 직원별로 주요 업무가 나뉘어 있음에도 매장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뭉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바쁜 업무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각자의 역할에 매진하는 분위기가 단단하게 뿌리내린 것이다.

“매장 오픈 준비 단계부터 함께하며 동고동락했기 때문 일까요? 직원들의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알고 바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을 정도죠. 저와 부매니저 또한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발로 뛰니다. 이런 '수평적 유연함'이 우리 현장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매장 오픈 후 20여 일간 거둔 성과는 놀랍기만 하다. 개장 첫 주말에 일 매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점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렸다.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 매출 목표를 웃도는 성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고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 위해 틈틈이 실무 영어 공부할 정도로 열정적인 직원들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신규 매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점 직원들의 2026년 목표는 명확하다. 명실상부 '전국 1위 매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말한 김지연 스토어매니저는 “매출에만 연연하지는 않겠다”며 “언제나 고객에게 편안하고 친절한 매장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향기로 행복을 선사하겠다는 이들의 희망찬 발걸음은 현재진행형이다.

MINI INTERVIEW



왼쪽부터 백지연(부매니저), 김도희, 김지연(스토어매니저), 유익선, 최지원, 유지민, 신민경

부족한 점은 채우고 노하우는 나누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요!

현장관리자 TALK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점 김지연 스토어매니저 7명의 직원이 연중무휴 매장을 운영해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매사를 즐겁게 처리하려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직원들 덕분에 지금의 배스앤바디웍스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점이 존재합니다. 새해에도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현장 개요 근무 인원 7명 위치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515번길 70,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1층 주요 업무 판매 및 매장 관리



신속 정확한 문제 해결로 고객 경험 만족도를 높인다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

검색부터 A/S에 이르기까지, 제품 및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 경험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제니엘 동대문센터에 자리한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은 친절한 고객 응대와 신속 정확한 문제 해결을 통해 이스트소프트 고객의 경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고객 불편 해결의 최전선에 서다

이스트소프트는 '전 국민 PC 유틸리티'로 잘 알려진 '알툴즈'를 개발해 20년 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IT 기업이다. '알집', '알약' 등 남다른 편의성과 보안성으로 무장한 소프트웨어로 성공을 거둔 뒤 검색 포털 서비스 '줌(ZUM)'을 세상에 내놓는 등 웹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 최근에는 한국어 특화 AI 검색 엔진 '앨런(Alan)', AI 영상 제작 서비스 '페르소 AI(Perso AI)' 등을 출시하며 '실용주의 AI 전문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랜 업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스트소프트에서 내놓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완성도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연령대, 사용 환경,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버그 등 변수가 많다 보니 각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밀접하게 파악하고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 구분학 센터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이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한다. 구분학 센터장이 설명을 덧붙였다.

“고객들이 이스트소프트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설치 오류, 기능 미작동, 프로그램 충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고객이 전화, 이메일, 댓글 등으로 보내오는 이러한 기술적 문의에 대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문답을 주고받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PC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직접 솔루션을 수행하는 원격 기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의 PC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워낙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객 대다수가 이를 능숙하게 다루지만, 여전히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일부 기능 활용법을 문의하는 고객이 더러 있다. 이러한 문의를 해결하는 일도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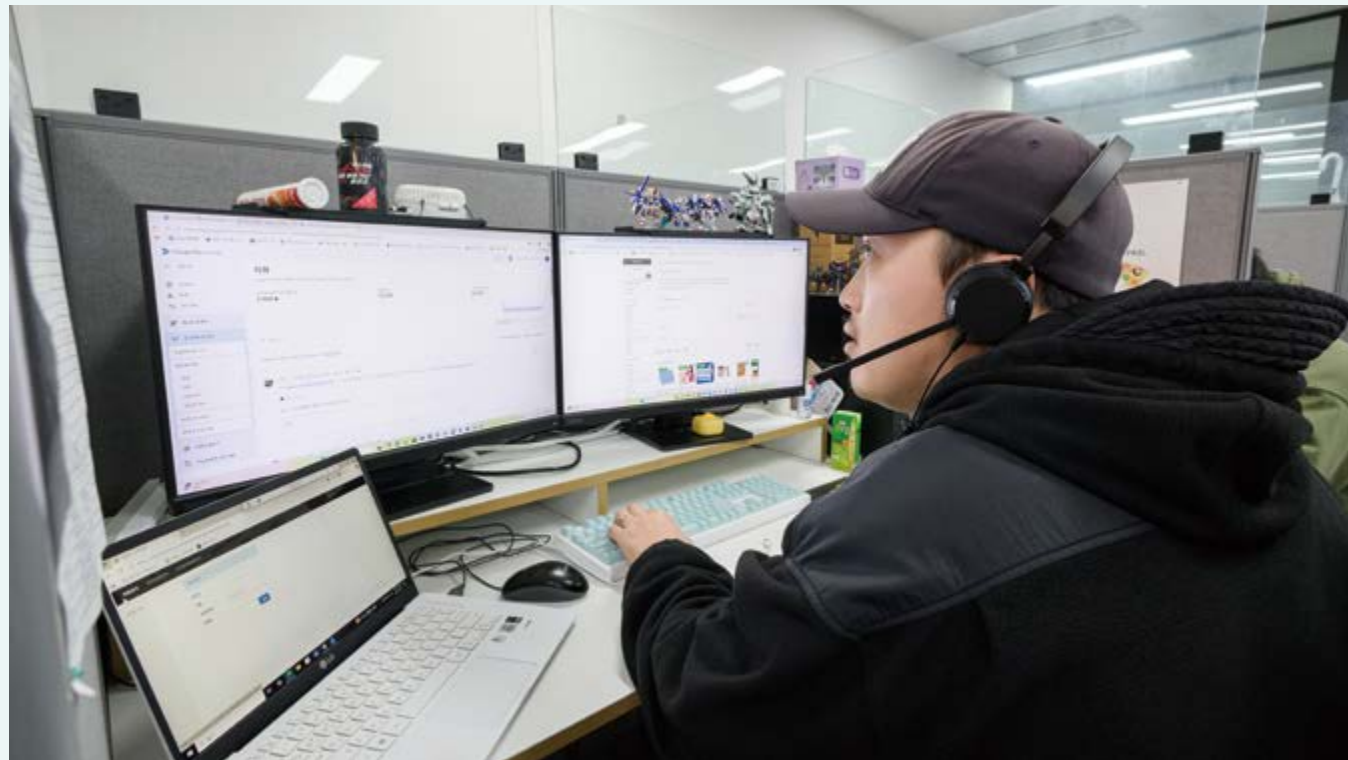


동반 성장 정신으로 걸어온 상생의 길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은 검색 포털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검색 포털 '줌'의 인물, 방송, 장소, 사이트,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등을 실시간으로 등록 및 수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최적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영상과 검색 내용을 필터링해 이에 따른 고객 불편도 최소화한다. “요컨대 우리 팀의 역할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고 운을 뗀 구분학 센터장이 말을 이었다.

“알집, 알캡처” 등의 PC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알약’을 필두로 한 보안 솔루션, ‘페르소 AI’와 ‘앨런’ 등 AI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사용 고객이 제기한 문의와 불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한편 ‘줌’ 관련 업무는 고객의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반영해 서비스의 편리함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 형태가 다르다 보니, 직원 간 업무 분담이 명확한 편인데요. 물론 고객이 다방면에 걸친 문의를 전달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한자리에 모여 최선의 솔루션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상시 교류한다. 따라서 팀이 맡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고객의 사용 편의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있다. 고객사인 이스트소프트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객지원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고객지원팀 또한 고객사와 동반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정리해 둔 다채로운 생각을 아낌없이 전달한다. 이스트소프트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기꺼이 제니엘과의 동행을 이어 나가는 이유다.



‘퇴사율 0’의 배경, 제니엘 동대문센터

최초 소프트웨어 고객 응대를 맡았던 이스트소프트 고객 지원팀은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검색 포털, AI 서비스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 왔다. 이런 와중에도 업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자진 퇴사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이례적이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언제나 서로를 챙겨주는 화목한 조직 문화를 언급한 구분학 센터장은, 지난 2022년 문을 연 ‘제니엘 동대문센터’ 특유의 내실 있는 업무 환경을 ‘퇴사율 제로’의 두 번째 배경으로 꼽았다.

“제니엘 동대문센터는 아웃소싱 콜센터 전문관으로 구축된 만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는 사무실, 첨단 장비를 갖춘 회의실과 교육실, 화상회의 전용 부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일하기에 더욱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틈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과 식사 공간, 안마기기가 설치된 수면 공간 등 직원들



의 업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아늑한 공간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업무 의욕과 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좋은 업무 환경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꾸준히 거두고 있는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 직원들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훌륭한 파트너, 고객 편의성 증대의 선두 주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고객 경험의 핵심 축’이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이들의 2026년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MINI INTERVIEW



왼쪽부터) 한형선, 나리하, 김병권, 구분학(센터장)

편의시설과 CS 관련 첨단 장비를 갖춘 ‘제니엘 동대문센터’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현장관리자 TALK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 구분학 센터장

파견직 1명에서 출발한 우리 팀이 이스트소프트의 일반 고객 전담 고객 센터로 자리 잡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지금의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면서 일한다면, ‘불확실한 2026년’을 ‘확실한 성장의 1년’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현장 개요 근무 인원 6명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0, 5층 주요 업무 고객 응대 및 기술 지원, 웹서비스 최적화



안전하게 이송하고 정확하게 배송합니다

중앙대학교병원 환자이송팀·수액배송팀

병원 안에서 환자는 검사받거나 진료받거나 또 수술받기 위해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액이나 약품들은 적시 적소에 공급돼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소리로 들린다면, 환자 이송과 수액 배송을 책임지는 이들이 그림자처럼 완벽하게 업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니엘의 역량과 책임으로 완성한 신뢰 관계

1968년 서울 필동에서 시작해 2004년 흑석동으로 이전하며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중앙대학교병원은 '전문성, 공정성,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공감과 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며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전국 1위, '상급종합병원 방문자 리뷰 평가' 1위, '상급종합병원 연속 지정' 등의 기록이 말해주듯 의료수준과 고객 서비스 전반에서 평가가 좋은 편이다.

700여 병상을 가진 3차 의료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걸맞게 중증·응급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이 타 종합병원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바로 환자 이송을 위한 전문 팀이 있다는 것과 수액 창고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상급병원에 노령 환자와 중증 환자가 많이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기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니엘 직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은 클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인원도 소수였고 이송 체계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병원의 규모 확장과 더불어 세분화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발맞춰 제니엘도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병원 시스템에 최적화된 '이송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까지 진화했다. 특히, 매뉴얼의 표준화와 지속적 직무교육을 통해 고효율의 빈틈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다. 또 최근 수액 창고의 위탁운영을 맡아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지면서 제니엘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제니엘이 개발한 이송 전문 솔루션을 활용하면 어플을 통해 업무 요청을 받게 되는데, 어느 병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가장 빨리 또 가장 적절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업무가 고르게 배치되고 대응도 빨라져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어요. 업무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데서 아주 중요한 솔루션을 제안한 거죠."

**안전성과 정확성으로
최고의 전문성 증명**



현재 중앙대학교병원에는 환자이송팀 20명과 수액배송팀 3명이 제니엘의 책임 아래 업무하고 있다. 이 중 환자 이송팀은 수술 전후나 진료 및 검사 시 입원환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가까이에서 돕고 있으며, 수액배송팀은 수액 창고를 위탁운영 하면서 수액을 비롯한 약품 처치 재료 등의 입출고 관리와 공급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업무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숨어 있는 디테일을 보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가 낙상 사고인 만큼 환자를 늘 조심스럽게 대하고, 이송 수단도 철저히 관리하며, 신체적·정서적 상태까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전'은 기본을 넘어선 최고의 전문성이다. 수액 배송이라고 다르지 않다. 사람이 아닌 물건을 이송하는 거니 좀 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송을 넘어 발주부터 재고 관리까지 관련 업무 전반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에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어야 한다. 병원 공지에 매일 올라올 정도로 약품 이름도 자주 바뀌고, 이름이 서로 비슷한 것들도 많으며, 같은 제품인데 용량만 다른 것들도 부지기수라 방심하면 오배송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필요한 약품의 생산 중단 같은 외부적 위기도 대비해야 하는 게 이들의 책임이다. 이에 수시로 입출고를 확인하고 청구된 수액이나 물품이 오배송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는 의료 현장에서 침착함은 실수를 차단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긴박한 순간일수록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해요. 수액 배송 역시 빈틈없이 꼼꼼히 하려면 차분함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엔 지름길이 없습니다. 늘 처음 하는 것처럼 교차 검수하고 재고 실사를 진행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차단하는 수밖에요.”

**안정적 팀워크에서
비롯된 긍정의 선순환**

이들의 이런 철저한 노력 덕분에 실제로 매월 병원 게시판에는 환자과 의료진의 감사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수술을 앞둔 고령의 환자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고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해 환자가 편안한 표정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던 일도 있고, 중증 환자를 검사실로 신속히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면서도 안전한 경로를 찾아낸 덕에 담당 간호사에게서 “빠르고 정확한 이송 덕분에 검사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은 일도 있다. 명절 연휴에 사용량 초과로 급하게 투석 수액을 구해야 한다는 연락에는 불편해하기보다 오히려 여기저기 알아보고 결국 무사히 해결해 준 적도 있다. 이런 이들에게 감사 인사가 선물처럼 돌아온 것이다.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 한 사람의 친절과 배려에서 나오



는 행동이 아니다. 팀원들 모두가 부족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채워줄 만큼 훌륭한 호흡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일이다. 동료들 존중하고 아끼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환자나 의료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단단한 결속력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팀원들이 서로의 상황을 살피며 언제나 도울 준비를 하고 있기에 항상 든든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해 업무를 차질 없이 완수해 내고 있지요. 병원이 저희를 평가할 때 늘 높은 점수를 주시는 데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모든 곳에서 힘을 얻고 있네요.”

MINI INTERVIEW



온 마음 다해 환자 치료를 돕는 핵심 연결고리

현장관리자 TALK

중앙대학교병원 환자이송팀 김상호 팀장

환자 이송 업무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한 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준 덕에 우리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죠. 우리는 단순히 환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병원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왼쪽부터) 조강욱 팀장, 한영준 사원, 장영웅 사원, 조혜연 사원, 박지완 사원, 황성빈 선임사원, 여은호 사원, 박승현 사원, 김상호 팀장, 유준선 사원, 송경아 실장

묵묵하게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현장관리자 TALK

중앙대학교병원 수액배송팀 조강욱 팀장

무거운 수액을 배송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모두가 꼼꼼하게 일해 주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여러분과 함께여서 마음이 든든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원에서 우리를 향해 하는 말 알죠? 우리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장 개요 근무인원 환자이송팀 20명, 수액배송팀 3명 위치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주요업무 환자이송 및 필수의료 지원, 수액창고 운영 및 수액배송 최적화

성공적 취업을 위한 양질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다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

인력 채용 시 경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업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은 이 같은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원하는 분야와 직무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 청년’과 ‘직무 경험’을 잇는 징검다리

‘경력직 우대’라는 다섯 글자는 직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직 청년들의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문구다. 기업은 당장의 높은 채용 효과를 기대한다. 따라서 경력직 선호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래 인재의 성장 발판이 점점 사라지는 셈이기에, 국가·국민·기업 모두에게 있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무작정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청년일경험사업은 이 같은 채용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구직 청년들이 내실 있는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은 이 같은 청년일경험사업을 운영하는 지점 중 하나로, 2024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의 일경험사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5년부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곳을 책임지는 최인수 파트장은 청년일경험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먼저 직무와 지역을 고려해 참여 기업을 발굴하는 데요. 참여 기업이 확정되면 각 기업과 함께 직무 실습, 멘토링, 수행 과제 등이 담긴 일 경험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이후 청년들을 모집 및 선발한 뒤 기업과 청년을 적절히 매칭하고,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전 직무교육을 시행한 후 본격적인 일 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에는 차년도 청년일경험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성과를 분석합니다. 아울러 참여 청년 간 담회,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과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경험사업은 관할 지역과 담당 직무가 지점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전국 단위 사업이다. 따라서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도 국내 전 지역과 모든 기업·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국민연금공단과의 사업 진행을 통해 공공 행정 직무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최인수 파트장은 “많은 구직 청년이 공공 행정 직무를 선호하는 만큼, 이러한 활동과 강점을 2026년도에도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분업과 협업의 효율적인 조화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에서는 총 4명의 제니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각 직원의 업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기업 발굴 및 관리, 행정·지원금 및 정산 관리는 각각 1명씩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 청년 모집 및 선발 업무는 2명의 직원이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원 간 협업이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점도 특징적이

다. 예를 들어 참여 기업을 집중 발굴해야 하는 연초에는 전 직원이 일정 기간 여기에 매달리고, 일 경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모두가 참여 청년 관리 및 지원에 공을 들인다. 이처럼 유기적인 업무 체계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휴가 등 여러 이유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도 걱정이 없다는 게 최인수 파트장의 이야기다.

“우리 지점의 핵심 원동력인 ‘원팀 정신’은 직원들의 동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 응대법, 청년 상담 기법, 분야별 업무 노하우 등 개개인이 내재화한 전문성을 동료들과 틈틈이,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신규 사업 수행 첫해에는 여러모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처럼 열린 조직문화 덕분에 한결 매끄럽게 1년 차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남지점형 청년일경험사업 모델’을 꿈꾸다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은 참여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진정성’과 ‘정확성’이라는 업무 철학을 공유하며 모든 일에 매진한다. 남다른 마음가짐은 남다른 결과를 낳는 법. 이들은 사업 첫 해 만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진심 어린 전문성’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 지점이 의미 깊은 1년 차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인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지점이 속해 있는 제니엘 성남센터의 차별화된 경쟁력도 큰 힘이 됐습니다. 현재 제니엘 성남센터는 청년일경험사업 외에도 인재채움뱅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사업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국민의 취업 지원’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태어난 사업들이라 보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른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점은 제니엘 성남센터가 가진 이 같은 장점을 요소요소에 활용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앞으로도 다른 사업의 직원들과 가까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생 발전을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2025년을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해’라고 정의한 최인수 파트장과 직원들은 2026년의 슬로건을 ‘질적·양적 도약의 해’로 정했다. 참여 기업 및 청년 수 확대는 물론 일 경험 프로그램을 한층 내실화하고, 작년 강점을 보인 공공 행정 직무 분야에 더욱 신경 써서 특색이 돋보이는 ‘성남지점형 청년일경험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게 이들의 새해 목표다. 당찬 각오로 2년 차를 준비 중인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의 2026년을 힘껏 응원한다.

MINI INTERVIEW



현장관리자 TALK

청년일경험사업 성남지점 최인수 파트장

우리 지점은 구직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담긴 희망을 건네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희망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요. 신규 사업 수행에 뒤따르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이 희망찬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덕분에 유의미한 2025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같은 ‘희망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왼쪽부터) 김고은, 박우정, 최인수(파트장)



현장 개요 근무 인원 4명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301-2호 주요 업무 청년일경험사업 운영 관리



창조적 지속 경영을 탐구한 자리

제니엘그룹 30주년 기념 도서 발간 세미나

여러 사업 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기업이 등장하곤 한다. 그 가운데 3년을 넘기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30년을 이어오며 아웃소싱 업계를 선도해 온 제니엘이 가치 있는 이유다. 특히 30주년 기념행사는 더 가치 있다. 자화자찬 대신 업의 본질을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 형식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의 인연과 함께 문을 열다

제니엘은 독서경영 우수기업으로 이름이 높다. 2025년까지 7년 연속으로 독서경영 우수직장에 뽑혔는데, 이는 '독서와 학습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독서 관련 사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박인주 회장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독서와 연구를 중시하는 사풍에 걸맞게 제니엘의 30주년 행사는 성대한 보여주기식 행사 대신, 30년간 쌓은 아웃소싱 노하우를 정리한 《창조적

지속경영을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도서 발간 세미나로 꾸렸다. 서울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1월 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세미나를 앞두고 연회장 앞 로비는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그간 맺은 인연들이 모여 들었다. 사업적인 계약으로 한 번 인연을 맺은 뒤 대부분 장기간 '동반자'로서 함께해온 기업의 대표와 관계자가 부지기수였다. 제니엘그룹 박인주 회장은 직접 문 앞에서 제니엘의 30주년과 도서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손님들 일일이 맞으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니엘은 30년간 쌓은 아웃소싱 노하우를 《창조적 지속경영을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에 집약해 펴냈다. 축하와 감사의 인사 속에서 제니엘은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냈다.



아웃소싱의 본질을 정리하고 미래를 모색한 세미나

1부는 도서 발간 세미나 및 출판식으로 치렀다. 《창조적 지속 경영을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을 쓴 집필진을 대표해서 산업정책연구원 이윤철 부이사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책 제작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밝히며 "소재, 부품, 장비는 제조업의 핵심으로, 소위 '소부장'이라 부른다. 아웃소싱은 각 산업 영역의 소부장과 같다. 핵심 역량 집중을 위해 아웃소싱이 꼭 필요하다"며 모든 산업의 기반 역할을 하는 아웃소싱을 조명했다. 이어 500페이지가 넘는 책의 핵심 내용을 목차 순으로 소개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탠 아웃소싱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발표 뒤에는 '아웃소싱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제니엘의 이장석 부사장, 송실대학교 최정일 교수, 산업정책연구원 김영기 원장, 피플그로스 컨설팅 오성호 대표가 패널로 등장했다.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웃소싱 전략,
아름다운 동행이야말로 제니엘이 나아갈 길이다.
제니엘은 새로운 30년과 '100년 기업'을 향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변모하려 한다.

에 안주하지 않고 도약해 나가는 제니엘의 모습은,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기업의 전형을 떠올리게 한다.”
화답하듯이 무대에 오른 제니엘그룹 박인주 회장은 먼저 내외귀빈
을 향해 깊숙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기업의 성장은 숫자가 아
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렸다”며
발언을 시작한 박인주 회장은 기업과의 신뢰는 물론 장애인 고용, 경
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제공을 포함해 꿈과 당당함, 자립 실현
의 길을 강조하며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웃소싱 전략, 아름다운
동행이야말로 제니엘이 나아갈 길”이라고 변하지 않아야 할 기본자
세를 강조했다. 이어 제니엘 박춘홍 대표는 ‘새로운 30년, 100년 기
업을 향해, ‘디지털 전환 및 사람 중심의 가치 공존’의 비전을 발표하
며 “100년 기업을 향한 혁신적인 여정,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나아갈
시다”라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는 제니엘이 추진해 온 IT 기반 솔루션을 소개했다. 그간
아웃소싱의 고도화를 위해 개발해 온 환자이송시스템 메디룩
(MediLook), 현장 인력 실시간 관리 솔루션 제모스(ZEMOS), 전
자 근로계약 시스템 데이싸인(DaySign) 등과 함께 신규 플랫폼 이
슈프리(issue free)를 공식 공개했다. 이슈프리는 노무·안전 이슈
를 통합 관리하는 신규 플랫폼으로 증가하는 노무·안전 이슈에 대
응해 기업·근로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도서 발간 세미나는 단순한 도서 소개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
웃소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꼭 필요한 태도, 아웃소싱이 필요
로 하는 새로운 솔루션의 소개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모
색의 자리이기도 했다. 100년 기업을 향한 고민이 어떤 결실을 보
게 될지 궁금해진다.



오성호 대표는 “책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하나로 아웃소싱 사업의
오해와 진실, 제니엘 혁신과 조직문화 등을 다뤘다”며 “아웃소싱
이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따라오지
못한다”고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
혔다.

김영기 원장은 “이 자리는 아웃소싱 산업 30년을 정리하는 자리이
자 다음 30년을 설계하는 자리”라며 “SI가 발전하더라도 맡은 일에
관한 책무(Responsibility)와 관리 책임(Accountability)의 화두
는 여전히 남는다. 이 부분이 아웃소싱이 모색해야 할 지점”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최정일 교수는 “한 분야에서 30년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대
단하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공부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의
덕목”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짚었다. 또, “아웃소싱은 각 산업
과 기업에 동적 역량을 제공하므로, 현 애자일(Agile) 시대에 걸맞
은 민첩성을 부여한다”며 아웃소싱 산업을 평했다.

이장석 부사장은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문명 이전의 물물교환 같은
가치 교환 방식 또한 아웃소싱의 일면일 것”이라며, “결국 아웃소싱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뜻을 살피야 한다”는 책임감을 드러냈다.

**30년이 60년,
100년이 되도록**

2부 행사는 30주년을 맞아 제니엘그룹과 행사 참석자가 서로를 격려
하는 행사로 치렀다. 먼저 단상에 오른 사람은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전 회장이었다. 그는 처음 제니엘 박인주 회장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
며 축하를 열었다.

“업체 선정을 위한 발표에서 업무에 대한 발언보다 사람만 보였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창업
자의 인품이 제니엘그룹의 밑바탕이 돼 30년을 이어온 게 아닌가 생
각한다. 지금까지처럼 먼저 보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행동하는 선
견(先見)-선결(先決)-선행(先行)의 자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제니엘
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강남훈 회장이 무대에 올
라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발표한 도서에는 제니엘 30년의 도전과 열정, 노하우가 담뱃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는 박인주 회장과 국가생산성 향상을 함께 고
민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세계적인 ‘구루’ 짐 콜린스의 책 《Good to Great》가 떠오른다. 성과

ZEN-iPlus

AI와 5G로 완성하는 스마트한 현장 관리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높아지는 안전경영의 기준의 해결책!

제조·물류 현장의 안전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AI 기반 안전 사고 예방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다양한 안전 디바이스 단독 사용 또는 결합 패키징 사용 가능

네트워크 서비스

5G 특화망

초고속·초저지연
기업 전용 네트워크망

네트워크 연속성

초저지연, 고신뢰 통신으로 끊김 없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데이터 무결성 보장

확장·변경의 유연성

환경 변화(공정변경, 자동화 기기 도입)에
즉시 대응 가능하고, 신속한 안전 대응 가능



안전 디바이스 I

AICCTV관제 솔루션

분산형 AI 기반
CCTV 영상분석

Add-On 설치방식

기존 CCTV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브릿지 디바이스를 통한 AI 지능화 전환

서비스 업데이트 용이

AI 기반 객체·행동 감지를 통해
알림·보고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제



안전 디바이스 II

AI 생체인식 솔루션

키오스크를 통한
AI 생체 신호 측정

비접촉 측정 기술

rPPG 기반 일반 카메라만으로 생체신호
측정 후 주취자·취약자·고령자 판별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내 주요 항목 별도 설정 가능
주/월간 측정일 지정 건강체크 및 알림 전송



기대효과

제조·물류 기업 특화, 안전 예방 솔루션

고객 맞춤형 패키지

현장에 필요한 안전 솔루션을
단독·결합하여 패키지 서비스 제공

안전 관리 비용, Risk 절감

안전 사고 예방을 통한
직·간접적 발생 비용 및 Risk 절감

디지털 전환, 혁신

5G특화망과 안전 솔루션의 결합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안전경영 경쟁력 확보

제니엘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뛰어난 성과로 제니엘을 빛낸
2025년 4분기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제니엘은 직원 소속감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월 1일에 뛰어난 성과로 모범이 되는 직원을 우수사원으로 선정·발표해 격려한다. 선정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제니엘 복지몰 '월샵'에서 사용 가능한 5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우수사원 선발 기준은 제니엘의 3가지 핵심정신 '도전하는 나', '책임지는 나', '함께하는 나'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는 직원이 제니엘의 자부심이 된다. 협력 속에 책임을 다하고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우수사원이 될 수 있다. 2025년 4분기 제니엘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제니엘은 항상 직원들의 성공을 응원하며 그들이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다.



- HR-Biz사업부**
- 우예빈 삼성전자 코스트코
 - 박주미 가나안 호랑가시베이커리카페
 - 조동희 국취제

- 컨택센터사업부**
- 김채연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센터
 - 유홍주 우아한형제들 배민커넥트지원센터
 - 김지윤 우아한청년들 운영지원센터

- 의료사업부**
- 김수연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 김상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파견)

- 제조1사업부**
- 임성필 르노코리아
 - 설준호 르노코리아
 - 김남용 세일병원
 - 김경숙 대한항공 김해화물청사

- 제조2사업부**
- 김안순 코스비전(생산)



- HR-Biz사업부**
- 신호영 (취에스빠)
 - 김재연 (취세라젤)
 - 오민석 신성통상 탕뎀

- 컨택센터사업부**
- 이주연 신한은행 콜센터
 - 배현경 신한은행 콜센터
 - 이재원 코스모앤컴퍼니

- 의료사업부**
- 안시정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파견)
 - 조아라 분당차병원

- 제조1사업부**
- 손호중 좋은문화병원
 - 김진현 두산전자 증평공장

- 제조2사업부**
- 조영순 아모레퍼시픽(생산)



- HR-Biz사업부**
- 유정호 삼성전자 전자랜드
 - 나연승 아마하뮤직코리아

- 컨택센터사업부**
- 김미선 제주은행 고객센터
 - 서승혜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실
 - 박옥수 대한상공회의소 상품정보관리실

- 제니엘메디컬**
- 안광수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 박지연 강동성심병원 콜센터

- 제조사업부**
- 박효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 문현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ZENIEL NEWS



제니엘, 현장관리 솔루션 'ZEN-i Plus' 소개 세미나 개최

제니엘은 11월 13일, '운영의 한계를 혁신으로 바꾸다'를 주제로 AI와 5G로 완성하는 스마트한 현장관리 솔루션 'ZEN-i Plus(젠아이 플러스)'를 소개하는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운영-안전 관리 한계를 기술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재해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노무 민원 확대 등으로 기업의 책임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니엘은 인력 아웃소싱 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통합 솔루션을 소개했다.

제니엘 심우석 사업혁신실장은 "강화되는 법-제도 환경에 따른 기업의 관리 부담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아웃소싱 역할이 단순 인력 제공을 넘어 기술 기반의 리스크 관리로 확장돼야 한다"며 ZEN-i Plus 개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상호 AI CCTV 담당 이사는 "ZEN-i Plus는 현장에서 1차 분석을 수행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클라우드와 연동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며, 쓰러짐-침입-안전장구 미착용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고, 모든 설정과 업데이트는 원격으로 진행돼 도입과 유지가 간편하다"며 특징점을 알렸다.



제니엘메디컬, 차세대 환자이송시스템 V3 'MediLook' 고도화 완료

제니엘메디컬이 환자 이송 프로세스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개발한 환자이송 시스템의 고도화된 버전인 'MediLook'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환자이송시스템 V3'는 기존 운영 중이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 현장에서 요구해 온 효율성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배정 알고리즘, 모바일 기능, 병원 전산 연동 등 이송 업무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새롭게 적용한 이송 배정 체계는 자동 배정, 캐치콜, 이송원 지정 등 세 가지 방식을 병원 환경에 맞게 선택하거나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제니엘메디컬, 인카금융서비스와 '안심 간병 서비스' MOU 체결

제니엘메디컬은 12월 5일 GA사 인카금융서비스와 고객 전용 '안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니엘메디컬은 지난 21년간 의료 분야에 특화된 아웃소싱 역량을 구축해온 기업으로, 자체 전문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양성된 간병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높다.

이번 협약으로 인카금융서비스 고객들은 제니엘메디컬의 '젠케어 안심간병'이 용 시 ▲간병인 매칭 신청 시 최우선 신속 배정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우수 간병인 우선 배정 ▲간병비 할인 등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니엘,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7년 연속 획득

제니엘이 7년 연속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선정됐다. 2014년부터 시행하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독서 친화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을 매년 선정해 인증 및 포상을 실시한다.

제니엘은 임직원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 토론회, 저자 초청 특강, 사내 전자도서관 운영, 연간 독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니엘 박춘홍 대표는 "지식 인재 양성을 핵심 경영 가치로 삼고 있는 제니엘은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니엘 그룹 30주년

혁신, 그리고 미래 : 제니엘의 핵심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30년간 아웃소싱의 가치를 확장해온 제니엘, 이제 IT혁신을 더해 미래 아웃소싱을 선도합니다.

컨택센터

의료/간병

유통/물류/판매

생산/제조

+

Digital

채용
AT@ZENIEL

인성검사 프로그램



+

예방
ZEN-iPlus

안전 특화 서비스

단독 또는 결합 패키지



+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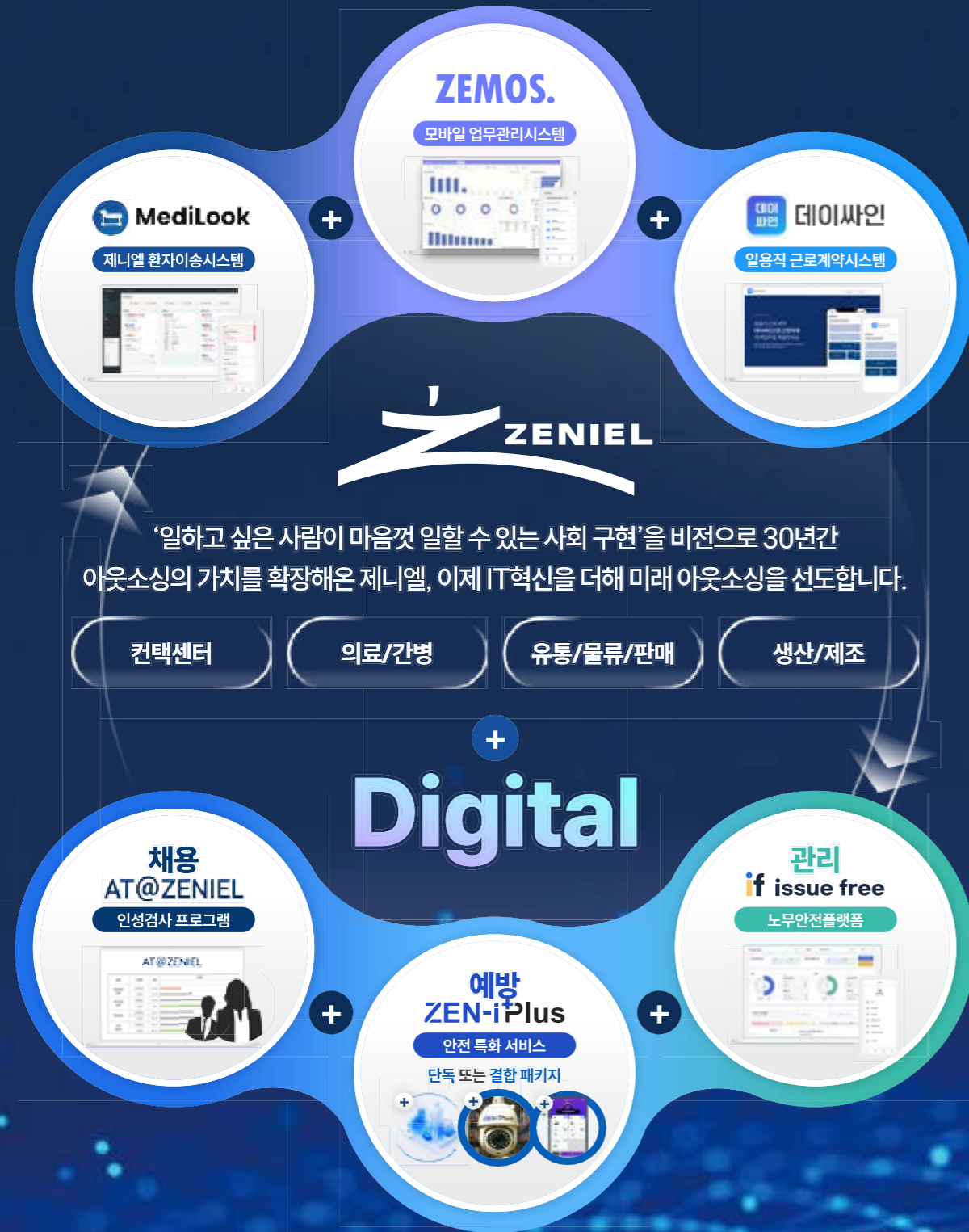
if issue free

노무안전플랫폼



제니엘 그룹 30주년

혁신, 그리고 미래 : 제니엘의 핵심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Best Partner
For Your Success

ZENIEL 2025
VOL.109
WINTER

제니엘



ZEN-iPlus

고객의 '안전' 고민을 해결하는 서비스 패키지

초저지연 통신 기술과 AI 기술 기반 디바이스를 결합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유연한 현장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강화되는 규제 대응

증가하는 사고 예방

유연한 IoT 연동



+ AI CCTV

+ IoT Sensor

+ Digital Robot

+ ATV / AGM

안전 경영

스마트 현장

운영 효율성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 구현”

The Best Partner for Your Success.



제니엘메디컬, 차세대 환자이송시스템 V3 'MediLook' 고도화 완료

제니엘메디컬이 환자 이송 프로세스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개발한 환자이송 시스템의 고도화된 버전인 'MediLook'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환자이송 시스템 V3'는 기존 운영 중이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 현장에서 요구해 온 효율성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배정 알고리즘, 모바일 기능, 병원 전산 연동 등 이송 업무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새롭게 적용한 이송 배정 체계는 자동 배정, 캐치콜, 이송원 지정 등 세 가지 방식을 병원 환경에 맞게 선택 하거나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제니엘메디컬, 인카금융서비스와 '안심 간병 서비스' MOU 체결

제니엘메디컬은 12월 5일 GA사 인카금융서비스와 고객 전용 '안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니엘메디컬은 지난 21년간 의료 분야에 특화된 아웃소싱 역량을 구축해온 기업으로, 자체 전문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양성된 간병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높다. 이번 협약으로 인카금융서비스 고객들은 제니엘메디컬의 '젠케어 안심간병' 이용 시 ▲간병인 매칭 신청 시 최우선 신속 배정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우수 간병인 우선 배정 ▲간병비 할인 등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니엘,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7년 연속 획득

제니엘이 7년 연속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선정됐다. 2014년부터 시행하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독서 친화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을 매년 선정해 인증 및 포상을 실시한다. 제니엘은 임직원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 토론회, 저자 초청 특강, 사내 전자도서관 운영, 연간 독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니엘 박춘홍 대표는 "지식 인재 양성을 핵심 경영 가치로 삼고 있는 제니엘은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